

##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작성자 : 김정혜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요약

-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젠더폭력 및 기타 범죄들과 결합하여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피해, 가해 규모가 증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하고,
  - ②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 ③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 ④ 또한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또는 경계성 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수월하게 발생하나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의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특정 피의자를 비정상화, 괴물화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비난을 통해 범죄의 가담을 정당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n번방'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관대하게 수용해왔던 문화임

## 🔍 시작하며

-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여성’은 그 자체로 성적인 기호임. 온라인 공간은 성별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성을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소비하고 모욕하며 비하해온 현실을 드러내주는 공간임.
- 많은 이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가상’의 것이 아닌, ‘현실’의 커다란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성차별의 일종으로서의 젠더폭력은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준비가 덜 되어 있음.
- 이 글에서는 최근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또는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성폭력의 변화를 살펴봄.

○○ on Twitter: "[#여중딩 #섹스 #가슴 #보지 #팬티 #음패 #개보지 ...twitter.com](#)

[퍼옵\]요즘 여중딩 피지컬 수준 rudals-toto.net](#)

[여고생여중딩 옆에 앉혀 놓고 소고기 사주는 인생 | 걸그룹·연예인 ...ilbe.com](#)

[나 이번달에 여중딩애들 존나많이생김; :: 웃긴대학 웃긴자료 web.humoruniv.com](#)

[프리보드 - 여중딩 둘이서 ㅈㅈㅈ - BATTLEPAGE.COM v12 v12.battlepage.com](#)

[크롤리업고 심하게 보여줘버린 16살 여중딩.. ㄷㄷ - 게시판 - 이슈킹 issueking.kr](#)

[여고딩이나 여중딩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 해외축구 - 에펠키리아 fmkorea.com](#)

[안흔한 여중딩 각선미 - 인스티즈\(instiz\) 인티포털 instiz.net](#)

○○ ♡ pa Twitter: "[시험진짜시러...ㅠㅠ #여중딩 #가슴 #아노 ... twitter.com](#)

[여중딩때 이미 G컵이었다는 비제이 누나 mt-guide.com](#)

[여중딩 따먹은썰.txt | 짤방 | 일베저장소 il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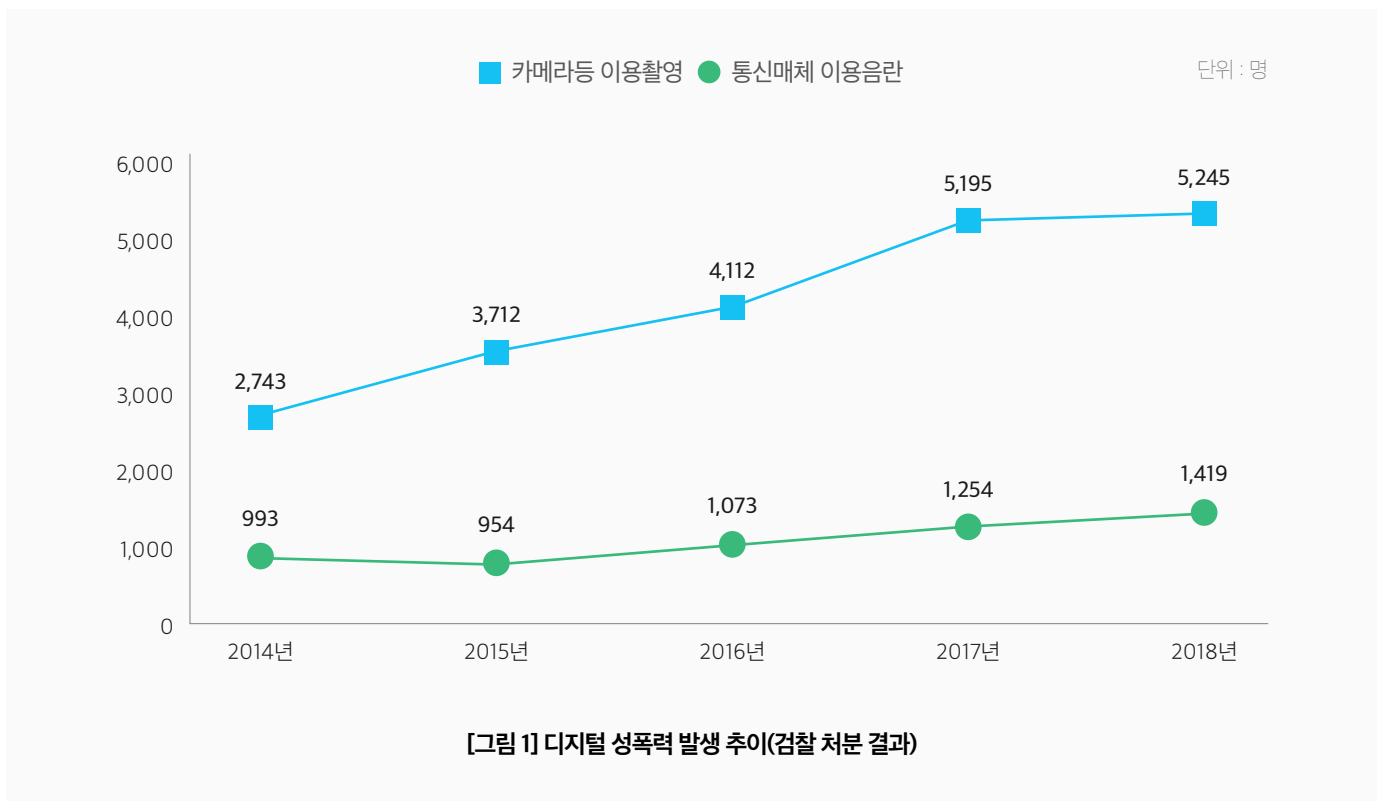
[표 1] 구글 “여중딩” 키워드 이미지 검색 첫 페이지의 게시물 제목들

**[설명]**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를 “여중생”에서 “여중딩”으로만 바뀌도, 가슴이 드러난 사진, 가슴 등 몸매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사진 등이 첫 페이지의 대부분을 차지함. 해당 게시물에서는 여자 중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글과 댓글이 난무하고, 일반적인 단체 사진조차 성적 의미를 투영하여 소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구글 검색 결과는, 미성년 여성조차 인터넷 공간에서 성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들

### ④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확장되는 성폭력

- 전통적 개념의 성폭력범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강간, 추행 등 신체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되었음.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성폭력의 범죄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수사 기법, 법정형과 양형을 정하는 기준, 피해자 보호 조치 등도 신체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모델로 구축되고 발전해왔음.
-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이미지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과 도구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이미지의 가공, 합성을 수월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되며, 이미지의 제공, 유포 등을 손쉽게 하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미지 합성, 이미지 유포 등의 성폭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함.



\* 출처: 검찰청(2019),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처분결과(총괄)'

\* 주: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합산한 것으로,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은 제외된 수치임.

-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추가로 발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통적 유형의 젠더폭력 및 기타 범죄들과 결합하면서 상승작용을 하기도 함. 이미지의 유포 가능성은 범죄의 자가증식을 촉진함.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죄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온라인/오프라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오프라인/온라인을 이용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범죄가 확대, 지속되고 가해와 피해의 규모가 증가함. 예를 들어, 이전까지의 성폭력이 주로 1:1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에서의 추행과 강간, 이를 위한 폭행과 협박, 지위나 피해자의 특성 이용 등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유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상물 촬영을 위해 폭행·협박·추행·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유포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또 다른 성착취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강간을 은폐하기 위한 촬영이 발생하기도 하며, 온라인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해 행위를 하고 서로의 범행을 부추기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집단 강간을 모의하고 실제로 강간이나 성매매 강요에 이르기도 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협박, 강요, 성폭력 등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또는 기타 범죄들과 결합하면서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피해가 가중되며 가해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④ 성착취물이 아닌 ‘야동’, 희미한 불법성 인식

- 비동의 또는 성착취에 의한 촬영물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성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영상은 ‘야동(야한 동영상)’이라는 애칭 아래에서 ‘은밀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성인(남성)의 하위문화로 인식되어 왔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신설, 소라넷 폐쇄,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착취 영상의 확산을 막으려 하는 국가의 대책은 희화화되고 우회 수단의 발굴·개발과 정보공유가 뒤따랐음. 국가의 개입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평가되며 ‘야동’을 소비하는 것이 남성의 ‘권리’로까지 주장됨.
-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죄의식이 낮은 문화에서, 여성 이미지의 공유와 성적 소비는 특별한 범죄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동료들’의 일상적 행위로 인식됨. 익명화된 개인들은 ‘성적 수치심’<sup>1)</sup>조차도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고 향유함. 이미지의 성적 소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은 폭력의 범죄성과 부정의를 확인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열어지게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공간으로 작용함. 여기에서 불법성 인식은 조롱거리가 되고, 범죄는 과시되고 독려됨.
- 촬영물의 시청, 소지가 피해자와 시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적 소비’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그와 같이 생각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거대한 가해를 형성함.
- 수사기관, 법원조차도 촬영 및 유포, 합성 등의 디지털 성폭력이 반드시 체포,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었음. 그간 다수의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운 처벌만이 이루어지면서 처벌의 확실성도, 엄격성도 부재하게 되었음.

1)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추행, 음란 등 개념의 핵심 요소임. 법의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조할 것.

[표 2] 디지털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

법률	내용	법정형/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행위를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한 경우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 또는 위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2020.6.25부터 시행)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2020.6.25부터 시행)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청소년보호법 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전송 방지, 중단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음란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73조, 74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음란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연나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청소년보호법 2조)

## ④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한 무한한 피해의 가능성

- 디지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도 자체의 품질 저하 없이 보존가능하며,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고, 보관과 확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소멸되지 않은 채로 장기간 지속이 가능한 성질을 가짐.
- 한번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는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함. 원본은 복제될 뿐만 아니라 변형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또다시 유포될 수 있음. 때문에 성적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도 크롭, 합성, 편집 등을 통하여 성적으로 소비되는 이미지로 변형 가능함. 즉, 애초부터 성적 착취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널리 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미지조차 편집되고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여 성적으로 소비되는 일이 가능해짐. 때문에 촬영물 원본의 성적인 성질과 성적 유통 및 소비는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음.
- 디지털 콘텐츠의 항상성과 확산성이 결합함으로써, 한번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는 항구적으로 유포가능성을 지니게 됨. 그로 인하여 유포 불안이라는 피해에 주목할 필요성이 생겨났음. 촬영물 유포 불안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에 없었던 피해 유형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대응이 나타남. 지속적 가정폭력에서 폭력의 압박을 감지한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아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사례들과 같이, 유포 협박이 있었거나 촬영물의 소지 또는 유포가 예견되더라도 경찰로부터 '아직 유포되지 않아 개입할 수 없다', '상대방을 괜히 자극하지 마라'는 답변이 되돌아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수사기관이 선제적인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 피해와 무력감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일단 유포가 이루어진 뒤에는 최초 유포의 규모와 무관하게 재유포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변형가능성으로 인해 촬영물 재유포의 사전 차단에는 한계가 있음. 촬영물은 편집, 합성 등으로 원본과 달리 변형될 수 있으며, 키워드 또한 무한한 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통한 게시물 등록 사전 차단 또한 효과적이지 않고 기껏해야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뿐임.

## ④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이 용이함

-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 채팅, 게임 등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통과 접근이 확대되면서, 비장애성인 여성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또는 경계성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고, 그루밍, 위협, 고립 등을 통해 가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처벌법의 수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또는 경계성 장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등 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신체적 접촉형 성폭력과 비교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알게 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초기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받는 현실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④ 성차별적 성의식 위에서 성립하는 범죄

- 디지털 이미지의 성적인 소비와 유포, 유포 협박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의식을 이용한 범죄임. 남성의 성에 관대하고 여성의 성에 보수적인 문화에서, 동일한 성관계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더라도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이미지의 유포 협박이 피해여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협박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신 가해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걸레’(더러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라는 낙인의 크기를 보여줌. 이중적 성규범 하에서 여성은 성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존재로서, 성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곧 무한한 성적 이용가능성을 의미하고, 성적 주체성이 부재한 존재, ‘순결한’ 존재일 때라야 비로소 피해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걸레’의 낙인은 피해자에게 ‘문란함’의 이미지를 씌움과 동시에, 성적 ‘이용가능성’과 추가 피해 위협을 수반하는 것임. ‘문란한’ 여성은 ‘더럽혀진’ 존재로서, 성적 접근이 가능하며 성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존재이자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됨.
- 때문에 범죄 과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행위성(agency)과 관련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짐.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이 있을 때라야 강간이 성립하는 현행법의 구조에서 피해자가 강요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가 존재함.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피해자의 ‘자발성’을 얻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 행위자’ 또는 ‘불법에 가담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도록 함. 또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을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거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렵게 함.
- 전통적 성폭력범죄에서도 피해 인정을 어렵게 했던 ‘전형적 피해자’, ‘전형적 성폭력’이라는 상으로 인하여, 성인 여성의 피해가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비하여 사소화되는 경향을 보임.

## ④ 범행 은폐의 기대가 높음

-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함. 텔레그램의 경우 메시지 암호화 전송, 전달 금지, 캡처 행위의 기록, 메시지 삭제, 자동삭제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들이 성폭력에서는 증거를 아예 남기지 않거나 증거 인멸을 수월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었음.
- 플랫폼 제작자는 플랫폼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비윤리적으로 사용되는 데 대하여 예비하지 않고 보안성만을 강화하여 플랫폼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며, 때로는 플랫폼에서 제공할 기록을 애초에 보유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함. 또한 물리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 공조가 어렵거나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은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유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범죄의 단서를 잡아내고 있음. 주요 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 범행은 통상적으로 여러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오가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의 보안성만으로 완전한 은폐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 고발 및 증언으로 범행이 밝혀질 수 있고, 범죄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음.

## 🔗 기술에 대한 이해가 처벌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가 증거 수집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피해자의 능력과 자원에 따라 범죄의 발견과 처벌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함.
-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 태도와 기술 수준이 사건 처리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큰 편임.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이해하고 사이버 경찰청 등 ‘전담팀’으로 미루거나 피해자가 ‘수사’해온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법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찾아내고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음. 증거 수집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고, 또한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자는 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함. 가해자로서는 피해자, 수사기관, 재판기관, 입법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처벌의 회피라는 ‘선물’을 받는 셈임.

## ‘n번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 🔗 개인의 괴물화에서 벗어나야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자, 운영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가 요구되었음.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의 요구가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가 27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표하였음. 신상이 공개되자 ‘신상털이’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과거 행적과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가 문제로 부상하고 ‘사이코패스’라는 등의 진단이 뒤따름. 이는 가해자를 비인간화, 비정상화하는 방식임. 이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16세, 12세까지의 미성년 피의자들이 등장하자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법의 비난으로 초점이 옮겨갔고, 소년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도적이게 되었음.



번호	분류	제목	청원 만료일	참여인원
1	안전/환경	텔레그램 n번방 동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04-17	2,712,001명
2	안전/환경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0-04-19	2,020,476명
3	기타	렌트가 흡차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2020-05-02	919,605명
4	안전/환경	가해자 n번방박사, 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2020-04-19	646,997명
5	육아/교육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20-04-19	524,431명

[그림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추천순 Top 5



- 비인간적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 세계'와 '비정상적 범죄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비정상적, 병리적인 괴물로 치부하는 태도는 자주 나타남. 그러나 범죄를 개인화하는 태도는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공동체의 기여와 책임 논의를 축소시킴. 널리 퍼져 있는 '아동' 문화와 'n번방' 이용자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음. 범죄가 괴물적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때, 사회의 전반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하나의 '사건'이 종결될 뿐임. 이번 사태를 비정상적 개인의 행위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성착취 영상의 공유와 성폭력에 죄책감이 없는 문화를 돌아볼 기회로 전환해야 함.

## ④ 피해자 비난과 피해자 비난을 통한 가해의 정당화를 멈춰야

-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괴물화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이를 통한 범죄 가담 행위의 정당화라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키스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별개이고, 지금의 성관계가 이후 언제든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포괄적인 동의가 아니듯이,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피해자가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범죄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함.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임. 가해자가 저지른 불법을 축소시키고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n번방'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제2의 'n번방'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생성하는 것임.

## ④ 특정 사건이 아닌 여성의 성적 소비를 용인·수용하는 문화에 주목해야

- 그러므로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n번방'을 가능하게 한 '문화'로 관심을 돌려야 함. 다수의 운영자가, 무수히 많은 '회원들'과 함께, 단 한 개의 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음. 더구나 'n번방' 사건의 수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플랫폼 또는 유사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 영상을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려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음. 이는 다름 아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짓고 여성의 성적 소비를 용인하고 관대하게 수용하는 오랜 문화의 반영으로서,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임.